

# 서울시 성동구 교육복지센터의 역할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권성철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 A Study on the Role and Development Plan of Seongdong-gu Educational Welfare Center in Seoul

Sung-Chul Kwon

Dept. of Social Welfare, Catholic University, Doctor completion

요 약 본 연구는 서울시 성동구 교육복지센터의 역할과 성과를 분석하여 도출하였으며, 향후 교육복지센터의 사업 방향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교육복지센터사업과 관련된 사회복지기관 및 학교에 근무하는 실무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교육복지센터의 역할 및 사업평가에 있어 교육복지 수행 관련 기관 간의 원활한 중개 및 연계를 통한 통합적 사례관리와 프로그램지원 등의 중요한 가교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학술논문으로는 처음으로 교육복지센터의 사업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을 실질적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교육복지센터의 지역 내 역할정립을 위한 요인들을 규명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 서울시 성동구 교육복지센터, 포커스 그룹 인터뷰, 연계, 역할, 사례관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ole and performance of Seongdong-gu Educational Welfare Center in Seoul and to find practical ways of future direction of the educational welfare center. For this study, we collected data on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related to the education welfare center project and working professionals working in schools, and analyzed the data using Focus Group Interview.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shown that the role of educational welfare center and the role of important bridge such as integrated case management and program support through smooth mediation and linkage among educational welfare performing agencies were carried out. This study is important for the first time in the academic papers in that it has studied practically the achievement and future development of the educational welfare center. In future research, Various studies will be needed.

**Key Words** : Seongdong - Gu Educational Welfare Center in Seoul, Focus Group Interviews, linkage, Role, Case Management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1997년 IMF와 2008년 말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사태의 여파로 야기된[1] 외환위기 이후, 조기 명예 퇴직으로 인한 실직자의 증가로 비정규직의 증가와 근로 빈곤층의 증가, 임금 격차 확대 등으로 발생하는 이혼이나 핵가족화에 따른 가정양육의 기능약화, 가정형태의

\*Corresponding Author : Sung-Chul Kwon(hoof40@hanmail.net)

Received January 26, 2018

Accepted March 20, 2018

Revised February 28, 2018

Published March 28, 2018

붕괴, 아동·청소년의 비행[2], 자살문제[3], 빈곤계층의 증가양상을 보이고 있으며[4]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사회양극화가 빠른 속도로 심화되고 그 영향으로 인하여 사회 불평등은 점점 심각해지고, 농촌이나 빈민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도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5].

빈곤은 아동의 정상적인 건강과 성장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빈곤가정의 아동의 문제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6].

이러한 경제적인 위기로 빈곤층이 확대되고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가정의 열악한 환경과 부모의 낮은 경제적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교육 불평등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다.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 교육환경의 동일한 출발선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미국의 경우[7] 교육적인 평등의 구현을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 소외된 취약계층, 빈민층 아이들을 지원하는 보상적 평등(redemptive equality) 정책을 시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공평한 교육기회의 제공은 복지를 실현하는 중요한 축으로서 아이들의 미래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인 창의적 인적자원의 자원을 형성 및 개발하는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인 동시에 빈곤의 다음세대로의 차단을 위한 근원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역동적인 복지의 측면에서 핵심적인 정책요소가 된다[8].

최근에는 다문화 가정의 경제요인[9]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경우 이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빈곤에서 오는 기초생활보장, 의료, 학교급식, 교육 등의 기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다[10].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보면, 빈곤은 아동·청소년의 교육과 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빈곤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아동·청소년의 빈곤의 대물림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적 불공평은 학교생활은 물론 생애주기 동안 학습 및 사회활동에 영향을 주고 교육소외를 초래하여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성취도의 격차가 벌어지고,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회에서 필수적인 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해서 결국은 동기를 상실하고 사회적 성공의 목표를 포기하는 단계에 이르게 한다[11].

결국 빈곤가정의 출발선이 동일하지 못한 이유에서 오는 발달적 열악한 환경은 이들의 타고난 결함 때문이 아니라 교육소외에서 오는 평등적 교육의 기회가 부족하

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빈곤 가정 아동·청소년들에게 최저 생계비와 물품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그들의 건강한 발달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재능을 개발하는 교육과 인성을 중요시하는 교육 및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의 제공여부[12] 빈곤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의 학업성취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3] 있으며, 소득계층별 자녀의 대학진학율의 차이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14]. 이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교육복지환경을 구성해 주는 것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른 정책적 대안으로 빈곤가정의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적극적인 교육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반영하여 저소득층 교육취약집단 학생이 밀집된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자율과 경쟁 중심의 교육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교육복지우선투자지원사업’이 2003년도부터 시행되었다. 그 후 2011년부터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전국단위로 시행되고 있으며 특별히 2012년부터는 가정의 경제·문화활동의 부족으로 인해 중복적 위기에 놓여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기관 및 학교와 교육복지 협력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학교적응력, 심리·정서, 가족지원 영역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지정하고 민간기관이 위탁·운영하는 지역교육복지센터가 설치되었다.

서울지역 교육복지센터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사업으로 2012년 3월 시범적으로 5개 센터가 운영되다가 2013년 2월 지역교육복지센터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16개소로 확대 운영되었으며 2016년 신규로 2개 센터가 증설되어 광진구와 송파구에 각각 설치되었다[15].

서울지역 16개구에 설치된 교육복지센터는 2013년 개소이후, 3년에 걸쳐 교육복지대상자 발굴과 문제해결 및 치료를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왔으며, 다양한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복지욕구와 역할에 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지역사회 내 교육복지센터의 역할 및 기능의 재정립을 위한 교육복지센터의 심도 있는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 1.2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성동구 내 교육복지센터의 역할 및 발전방안을 도출·분석한 것으로 성동구 교육취

약계층 아동·청소년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교육복지센터의 사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성동구 내 교육복지센터사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의 전문가를 두 그룹 학교와 지역기관으로 나누어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연구방법에 활용하여 성동구교육복지센터의 지난 3년간의 역할에 관한 현황과 성과에 대한 고찰,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해보는 연구를 목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2013년 서울시 성동구교육복지센터 개소이후 지난 3년간의 역할과 성과는 무엇인가?

<연구문제2> 향후 서울시 성동구교육복지센터의 거점센터로서의 역할 및 발전방안은 무엇인가?

##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2.1 교육복지의 개념

교육복지의 개념은 많은 연구와 학자들에 의해 수혜자대상과 범주,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시각들로 정의되어 왔다. 즉, 교육복지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관점에서 볼 것인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관점으로 볼 것인지, 교육복지가 추구하는 기능과 목적은 무엇인지 등 교육복지를 보는 다양한 논리와 관점에 따라 정의되어 왔다. 공통적인 교육복지는 “교육취약 집단에 대한 지원을 통한 기본적 교육기회의 보장”이라는 개념과[8], ‘공평한 교육기회의 동일한 출발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된 공적 지원’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또한 다른 학자의 개념정의에서는 교육소외[16]에 대해 “동일한 교육의 기회의 제공을 통해 개개인에게 필요한 교육기회의 경험이 주어지지 못해 자신의 진로에 관한 중요한 잠재능력을 제대로 개발 혹은 발휘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빈곤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이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교육복지의 역할정의에 대해 교육복지는 “교육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동일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나 장치를 지원하여 정상적인 교육과 학습

이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주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김정원[17]은 교육을 상위 개념으로 보고, 교육은 수단적 가치보다 교육 자체로서 학생들을 인간답게 성장하게 하는 근본적 가치에 더 초점을 두었다고 보았다. 반대로 복지를 상위 관점으로 보았을 때도 도출된 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그 관점이 다양화된 복지 영역 중심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복지중심의 학교사회복지와 좀 더 확장된 개념인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진행되는 복지적 의미로 보았다[18]. 마지막으로 교육과 복지 각각의 독특한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교육은 교육적 의미로서의 순수한 의미와 방법에 충실하여 교육이 지향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지만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사회복지가 교육적 분야에 영향을 주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학교체계내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스템에서는 사회복지사와 교사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한 연구[19]에서 교육복지가 교육 내부에서 주로 작동되지만 학교체계 내의 소속되어 있는 다양한 주체들인 교사, 상담사, 영양사, 행정담당자, 간호사들로만 문제해결을 위해 수행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전문 기관들의 팀 접근에 의해 수행될 수 있으며, 학교,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복지서비스의 과정은 기존의 사회복지와 접점이 되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부분에서 교육과 사회복지의 대상자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기관 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상호 협력의 관계로 보았다.

### 2.2 교육복지센터의 개요

서울시 교육청[14] 자료에 의하면, 초·중·고 1,301개교에 재학하고 있는 법정저소득가정 학생은 59,348명으로 전체 학생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59,348명 중 68.5%에 해당하는 40,644명이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에 재학하고 있고, 비 사업학교에 31.5%인 18,704명이 재학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20]의 교육복지센터의 태동의 목적은 가정의 경제적·문화적 부재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학교 - 지역기관의 연계·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거점으로서의 다각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단위의 민간위탁 교육복지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교육복지센터는 이전까지 교육복지의 지원에서

벗어난 교육복지를 실시하지 않는 비 사업학교로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소외학생에 대한 지원계획이 필요하였다.

교육복지센터는 지역에 기반을 둔 교육복지 자원의 공유 및 목록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망 강화를 통해 자치구-민간기구-학교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거점의 역할을 만드는데 있다. 교육복지센터는 교육복지서비스가 지원이 되지 않는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대상학생들을 지원하고, 교육복지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의 지원에 대한 지역교육복지센터의 설치와 관련한 법적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제1호 교육부 장관이 고지한 학생이 집중되어 있는 학교에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부 훈령 제106호의 법적근거로 보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 한 부모 가족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탈북가족·다문화가족자녀 등에 통합적인 교육지원이 절실한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14]. 교육복지센터의 추진 사업을 보면 상담을 통한 심리(정서)행동 지원, 학교적응력향상프로그램 지원, 가족개입 지원, 지역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의 4가지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교육복지센터의 중점사업으로는 위기 학생의 발굴을 통한 신속한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사례관리를 핵심 사업으로 보고 있다. 단순한 1회성의 지원목적보다는 지속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건강한 학생성장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있다.

또한 잠재적 위기학생에게 적절하고 신속하게 학생성장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네트워크 구축에 궁극적 목적이 있다.

### 2.3 선행연구 검토

국내에서는 교육복지센터의 선행연구보다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교육복지센터가 설치된 시점이 2013년 이후다 보니 해당 자료가 많지 않은 점도 원인이라고 하겠다. 대부분의 교육복지와 관련된 많은 연구에서 교육복지지원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지원에서 배제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복지의 역할 및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는데 연구의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교육복지사업의 현황과 성과에 관한 연구[21]에서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의 운영을 통한 사업성과에 관해 진단해보고 향후과제와 발전방안에 대해 제언하였으며 이후로는 교육복지와 학교의 역할연구[17]에서 교육복지 지원 사업에서의 성과와 교육복지담당자, 학교주체들의 역할에 대한 과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지역과의 연계를 목적으로 하는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한 연구[22]로는 교육지원체제로서 지역 네트워크 형성과정에 한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가 있다. 교육복지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기관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역할의 탐색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23]가 있으며, 교육복지 네트워크 조직 실태조사[24]등의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또 다른 연구에서 조은영·김순규[25]는 중학교 학생에게 위한 교육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지지,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참가하는 학생들의 변화 정도를 측정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들 연구들은 대체로 기존 교육복지사업에 대한 성과측면과 학교주체나 교육복지주체들이 기존의 지역사회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정과 지역적 특성에 따른 교육복지관련 지역기관들의 네트워크의 구성과정과 성과에 대한 실례사례들을 서로 비교하여 분석하고 있다.

또한 초기에 많은 연구들이 교육복지지원 대상 및 지원 학교 비율과 지원 학생 혹은 참여 학생의 비율과 지원 프로그램 수 등의 양적평가와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가지고, 실태조사와 사업성과를 분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경향들은 교육복지 관련프로그램이 진행되는 학교에서 각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이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것과 지원프로그램의 효과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있는지, 그리고 관련된 교사 및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복지요구들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에 관한 다양한 질적 연구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복지센터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교육복지와 관련된 연구들이 주는 시사점은 현 시점에서 서울지역 교육복지센터를 태동시키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정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사회의 자원 발굴 및 공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 3. 연구방법

#### 3.1 연구대상

본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의도적 표본추출(purposeful sampling)방법에 근거하여 선정하였고,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복지센터사업이 운영되는 학교 및 지역기관에서 관련프로그램을 실제로 진행해 본 실무전문가로 제한하였다. 사업의 경험은 학습, 심리정서 및 문화 등의 여러 분야에서 실천 경험을 가진 실무전문가로 초점을 맞추어 탐색하였다.

둘째, 교육복지센터 지원 사업에서 3년 이상의 실천 경험을 가진 실무전문가로 제한하였다. 그 이유는 학교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현장에서 3년 이상의 교육복지사업을 운영한 실천 경험 속에서 교육복지센터 관련프로그램 및 사례관리를 연계, 실천해 본 실무전문가의 충분한 실무 경험을 탐색하고자 함이다.

셋째, 집단을 구성할 때 교육복지센터 실천영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와 지역기관의 2집단으로 구성하였다. 교육복지센터사업의 경우 실천현장별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특수성을 갖기에 이를 고려하여 실천현장의 특수성이 본 연구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기관을 중심으로 두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였다.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 전문가들은 사전 동의하에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 의의를 설명하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의 기본원칙은 새로운 의미가 발견되지 않는 최대 포화시점까지 표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총 10명을 2집단으로 구분하여 A집단은 5명, B집단 5명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 3.2 연구기간

연구기간은 2016년 6월에 총2회로 실시되었으며 인터뷰가 진행되기 전 각 그룹에게 인터뷰 실시 목적을 간략히 설명하고, 이메일을 통해 반 구조화된 질문내용이 담긴 질문지를 발송하였다.

2집단에서 총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각 집단 별로 1회에 2시간 정도 인터뷰가 진행되었고 자료 수집 기간은 2016년 6월에 1개월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 3.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3.3.1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본 연구에서 사용한 FGI는 Morgan[26]과 Krueger[27]가 제시한 질적연구방법론은 해당주제에 관해 사전에 잘 인식되어 있는 유사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 간의 토론과 상호작용을 통해 도출된 자료를 수집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일반적인 설문조사에 비교하여 주제나 해당문제에 관한 심층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교육복지센터와 같이 역할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결과물의 도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교육복지와 관련된 실무전문가가 아니면 그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무전문가를 대상으로 사업성과를 조사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양적조사의 계량화를 위해 수집된 자료를 압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성과와 발전방안에 대해 보다 실제적인 자료에 가깝고 심도 있는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FGI는 일반적인 초점집단 인터뷰와 달리 집단구성, 규모, 목적, 운영 과정에 있어서 독특한 형태라고 할 수 있고,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참여자를 선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group	Participating professionals	age	gender	affiliation	Associated work experience
A (group)	Local practitioner(1)	49	man	00Welfare center	2 years 9 months
	Local practitioner(2)	29	woman	00Center	4 years 9 months
	Local practitioner(3)	33	woman	00Center	9 years 6 months
	Local practitioner(4)	36	woman	00Training center	12 years 2 months
	Local practitioner(5)	46	woman	00Center	16 years 5 months
B (group)	School practitioner(1)	51	man	00Middle school	4 years 4 months
	School practitioner(2)	32	woman	00Middle school	5 years 3 months
	School practitioner(3)	39	woman	00Elementary School	3 years
	School practitioner(4)	44	woman	00Elementary School	7 years 4 months
	School practitioner(5)	49	woman	00Elementary School	4 years 4 months

정하여 그룹을 구성하고 주제토론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론을 찾는 과정으로,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의 집단 환경에서 참여자들은 큰 주제에 관점을 맞춰 각자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얻은 실천경험을 바탕으로 경험을 나누고 상호작용을 통해 의견들을 교환하면서 토론을 진행해 간다[28].

인터뷰 절차는 인터뷰가 진행되기 전 각 그룹에게 인터뷰 실시 목적을 간략히 설명하고, 이 메일을 통해 반구조화 된 질문내용이 담긴 질문지를 발송하였다. 이는 반구조화 된 질문지를 미리 숙지하여 참여자들이 질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준비하여, 이후 인터뷰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진행자 1명과 연구자 겸 기록자 1명은 연구내용 및 순서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구성원이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에서 관련 질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 비교접근(constance comparative approach)방법을 이용하여 기록의 내용을 자주 나오는 몇 가지의 주제로 범주화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시작하기 전 연구자와 진행자가 작성한 기록 노트와 인터뷰 요약, 전사 자료를 바탕으로 서로 교차로 확인하며 검증하였다. 인터뷰내용, 인터뷰에 대한 인상, 인터뷰 중에 기록한 기록지를 인터뷰 후 24시간 이내에 정리하고, 72시간 이내에 관련 연구자들이 다시 만나 토론하여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분석과정에서도 연구자가 작성한 항목별 분석내용을 진행자가 교차로 확인하는 동료검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전사 자료를 여러 번 정독하고 주제와 관련된 중요한 구절이나 문장을 찾아 표시하면서 자료에 자주 나타나는 주제들을 찾고 개념들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개념들을 재검토하고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핵심 주제의 개념들을 찾아나갔다. 그 중 주요한 내용들을 뽑아 본문 그대로의 코딩을 실시한 후, 범주화하였다.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하여 성동구교육복지센터의 역할과 성과를 도출하고, 향후 센터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4. 연구결과

### 4.1 성동구교육복지센터의 3년간의 역할 및 성과

#### 4.1.1 교육복지 연계망 구축의 거점센터로서의 역할

지난 3년간의 성동교육복지센터의 역할에 관한 의견들이 다수 존재하였다. 교육복지센터가 설립된 취지 중에 교육복지관련 지역네트워크 망 구축의 큰 틀이 중요한 목표였다. 이번 인터뷰과정에서도 성동교육복지센터가 지난 3년간 지역기관들의 중심거점으로 지역사회와 학교를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결과다. 이러한 지역연계 거점으로서의 역할들은 교육복지 대상학생 발굴 및 효과적인 위기대상학생의 개입과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들이다.

#### 1) 교육복지지원기관(교육복지공동체) 구심점이 되는 가교역할

성동교육복지센터는 위기학생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개와 연계의 역할이 중요한 역할도 대두되었다. 이에 교육복지센터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여러 기관이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교를 담당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저도 2년차다 보니 작년업무를 보완해가면서 방향을 바꿔보려고 한다고 하면 컨설팅 할 때 많은 도움을 줘서, 올해는 조금 더 독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센터라는 이미지로 굳어졌어요.”(학교실무자 1)*

*“저의 입장으로 자꾸 진행하고 있는데 다 환경이 다르구나. 그러려면 뭔가 구심점이 되는 기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교육청은 사업을 주관하지 않고 사업비만 내려주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게 없어요. 연계역할은 센터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지요.”(학교실무자 2)*

*“우리가 계속 성동구에서 추구하는 게 교육공동체를 만드는 건데 소통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조율하는 뭔가가 없어요. 구심점의 역할을 센터가 해주는 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중점학교 같은 경우는 지진 가들이 오래있다 보니까 사례관리가 잘 되어있는 부분이에요.”(학교실무자 3)*

#### 4.1.2 지역자원 정보 및 연계의 역할

#### 1) 교육복지사업 컨설팅지원 및 코칭

교육복지사업 관련 사업에 관한 초기 시작점에서 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계획 및 진행에 대한 어려

움을 겪었으나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복지센터의 지원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컨설팅지원이 이루어졌고, 이는 교육복지센터사업의 정착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하겠다.

“교육복지센터에서 한번 센터장님이랑 담당 전문가 선생님이랑 컨설팅을 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거든요 초안이 될 수 있는 도움을 많이 받았고 사이사이에 모르는 게 있으면 코치를 많이 받았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하다가도 혜택을 못 받았을 때 정보가 없을 때도 이틀 내에 관련된 후원이나 이런 걸 다 알려 주시더라고요.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학교실무자 4)

2) 상담지원, 외부행사 연계, 병원연계, 경제적 지원, 가정방문의 지원 및 연계

지난 3년간 성동교육복지센터는 지역자원연계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필요한 상담지원을 포함하는 병원, 경제적 지원, 가정방문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위기아동사례들의 긴급한 위기해결에 필요한 자원 망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제 2013~2014년 이럴 때 보면 저희 학교가 센터에 가장 큰 수혜자로 알고 있는데, 외부행사라든지 동반자 사업이라든지 1:1 맞춤형 지원이라든지 구체적인 지원(병원, 경제, 가정방문 연계)을 받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학교실무자 1)

3) 무료법률상담 연계

위기학생의 개입의 형태 중 권익옹호를 위한 무료법률서비스를 연계·지원하여 법적인 사회적불평등에 대한 문제 해결에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료법률 서비스 이런 것이 있는지 몰랐고, 지금 이것을 무료상담을 통해서 부당하게 쫓겨나게 되듯이 이혼한 어머니가 친권 양육권 소송을 100%의 확률로 승소가 능성이 있다는 것에 힘을 얻어가지고 8개월 노력한 끝에 오늘 아침에 법원 앞에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친권과 양육권을 오늘 받으신 날인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학교실무자 2)

4) 통역지원서비스 연계

최근 다문화가정의 사회적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

다. 이에 따른 대상학생의 인구의 증가와 지원이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이었는데 교육복지 대상 학생 중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의 사례개입과정에서 다문화가정의 언어 문제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통역지원서비스의 지원을 통해서 효과적인 사례개입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다음에 다문화 여성인데 아버님과 언어소통이 안 되고 나이차도 있고 가정폭력도 있고 이런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담임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영어를 하시는데 통역 상담을 또 이제 제가 의뢰를 했는데 그것도 가능하다고 하셨어요.”(학교실무자 2)

5) 문화, 보건, 복지, 심리 등에서 아이들에게 기회제공 성동교육복지센터의 프로그램 중 대상학생들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진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문화체험 및 보건, 복지, 심리 등의 종합적 지원을 통해 개인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냈다.

“분명하게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네 가지 분야에서 문화, 보건, 복지, 심리 여러 가지 면에서 아이들에게 기회를 제공된다는 것은 아이들에게도 지역에서도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갈수록 빈부의 격차가 대물림되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고 나름대로 가시적 효과도 나타난다고 보여 집니다. 우리 학교도 나름대로 그러한 것을 보고는 자기 개인적인 회복탄력성이 높아지는 아이도 설문 속에서 볼 수 있었고 상당히 의미가 있고”(학교실무자 2)

“프로그램을 보면 작년에 쌍둥이가 뮤지컬 배우의 꿈을 가진 애들이 토요일마다 연습하고 가서 공연을 본적 있는데, 사실 학교 공부와는 거리 먼 아이들이었는데, 거기서는 상당히 자기가 좋아하는 게 진로에 관련되는데 너무 좋았던 프로그램으로 보여 지구요.”(학교실무자 3)

“개인적으로 찾아갈 때 대상이 국한되었는데 교육복지센터를 알고 나서 취약계층의 지원에 있어서 보편적인 복지측면에서 많은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들에게 많은 기회들이 주어지는 계기가 되었어요.”(지역기관실무자 1)

“동반자프로그램의 경우에 센터의 역할측면에서 사례관리를 입체적으로 통합적인 접근이 가능하여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지역기관실무자 2)

#### 4.1.3 학교-가정-지역기관 간 네트워크연계 중개자로서의 사례개입 및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종합적 지원센터로서의 역할

중복사례대상자에 대한 통합적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성동교육복지센터의 학교·가정·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통합사례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활동을 통해 조정 및 연계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는 평가다.

“작년 같은 경우는 통합사례회의(드림스타트, 정신건강센터, 교육청, 동사무소)에서 한 가정의 아이를 키우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어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혜자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 3년간의 역사가들이 저희들은 참 좋았다고 받아들이고 있었어요.”(학교실무자 3)

“통합사례회의를 잘 하고 있는데, 센터는 일반학교의 사례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일반학교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홍보가 안 되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변화가 많아도 담당자가 아닌 입장에서는 센터의 이해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담당하는 일반교사 뿐 아니라 그 문화에 파고 들어서 복지문화를 만들어주는 연수를 해 주신다면 아니면 사례관리를 하더라도 조금 더 지역에 있는 자원을 가진 기관들과 같이 학교에 들어가서 관계자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통해 소통해주고 안내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셔야 성동구가 전반적으로 동일하게 프로그램이나 교육복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학교실무자 4)

“통합사례회의 시 학교와 지역을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사례 및 프로그램의 연계시 중간의 조정의 역할이 좋았어요.”(지역기관실무자 3)

“그동안의 성과는 대상학생의 발굴 및 사례관리부분에서 기관과 학교의 연결고리의 역할인 것 같아요.”(지역기관실무자 4)

## 4.2 성동구교육복지센터의 향후 역할 및 발전방안

### 4.2.1 통합사례관리 시 네트워크기관과의 사례공유의 필요성

통합사례관리과정에서 의뢰된 아이들에 대한 기관 간 사례관리과정상의 정보의 공유가 원활하지 않는 부분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공유의 문제는 교육복지센터의 인식이나 홍보부족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학교 정기방문 시 사례개입 및 사업에 대한 간단한 소개 등을 진행하여, 학교 담당자와의 소통창구를 일원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활동들은 장기적으로 홍보효과와 사례공유의 효과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 하나는 지금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의뢰해가지고 많은 프로그램을 해줬는데 막상 홍보가 부족하다. 피드백이 잘 안 온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워낙 인원이 적고 바쁘시니까, 그걸 감안하고 학교에서 이렇게 그때마다 피드백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홍보의 목적도 있으니, 이렇게 일을 많이 했으니 일반학교에서도 알아주면 좋으니까, 학기별 학교 방문을 해서 아이들에 대해 이리러리한 일을 했다고 브리핑을 하면 홍보효과도 있고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학교실무자 5)

“서비스 중복 및 사례관리자의 역할이 어떤 기관인지에 대한 전체 성동지역 대상아동의 정보에 대한 전체조사 필요하고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지역기관실무자 3)

### 4.2.2 일반학교 교육연수 및 년 초 사업 시작 전에 정기적인 교육복지센터의 역할에 대한 교육 및 소개시간의 필요성

성동구교육복지센터의 역할 및 활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학교현장이 많았다. 특히 새로 부임하는 교장선생님과 복지관련 부장님들이 센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듯 보인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매년 학교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연수나 교육복지센터의 역할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정기적으로 기획 및 진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제가 생각하기는 년 초나 교육복지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담당이 되면 이분들을 대상으로 예산을 쓰는 부분이라든지, 교육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에 대해 오리엔테



이선과 같은 홍보자리를 마련해주셨으면 했어요.”(학교실무자 1)

“교사연수 시에 교육복지센터 사업 및 관련기관의 역할 및 사업에 대한 소개 및 홍보를 진행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지역기관실무자 2)

#### 4.2.3 자원의 효과적인 연계 및 활용을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의 필요성

자원의 연계 및 활용은 대상학생의 문제해결에 중요한 요소이다. 효과적인 자원관리를 위해서는 교육복지네트워크기관들 간의 긴밀한 연계 및 조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아까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도 성동교육센터가 성동 자원만 활용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지역 센터들의 기관끼리의 연계협력과, 담당자들의 소통을 통한 네트워크이 더 잘 이루어지면 조금 더 자원들이 필요할 때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학교실무자 2)

“기관과의 네트워크는 동행 프로젝트랑 통합 멘토링,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는 동행, 여기서도 아이들, 제가 의뢰하는 아이들을 병원, 심리검사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두드림이라는 게 있어요. 이중으로 중복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학교실무자 3)

#### 4.2.4 교육복지센터 네트워크기관과의 프로그램의 연계 및 확대의 필요성

교육복지센터 프로그램의 다양한 영역의 확대가 요구된다. 거점센터로서의 동행이나 멘토링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대상학생 및 가정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들의 개발과 확대, 유지가 필요하다.

“동행해줄 부모님이 안계시잖아요. 누가 동행을 해주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규칙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가이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위탁부모처럼요. 뭐 그런 것이 있으면 참 정말 보내주고 싶은데, 부모가 바빠서 못 가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참여조건이 부모님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학교실무자 4)

“여기도 그렇고, 멘토링을 기획할 때 멘토들도 연수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늦게 연락을 안 하거나 곤란에 처하게 된다면 차감을 하던지 책임을 갖게 했으면 좋겠어요.”(학교실무자 5)

“네트워크 측면의 예로 부모교육의 경우에도 모집이나 행사지원 등의 모든 사업의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지역기관실무자 3)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3년간 교육복지센터 설치이후에 성동교육복지센터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직접, 간접적으로 실행해 본 지역사회기관 전문가들의 경험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3년간의 발전을 위한 실천가능성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교육복지센터사업을 실천해 본 경험을 가진 지역기관 및 학교전문가 10명을 두 그룹으로 구성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활용한 질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교육복지센터사업의 경우 실천현장별로 독특하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존재하기에 이를 참고하여 실천현장의 특수성이 본 연구에 영향력을 주지 않기 위하여 2개 현장을 중심으로 두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였다.

총 10명을 2집단으로 구분하여 A집단은 5명, B집단 5명으로 구성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고 결과물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 적 함의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동구교육복지센터의 역할측면에서 지난 3년간의 운영을 통해 교육복지센터의 역할수행에 있어서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했다는 연구결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교육복지센터가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구심점의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사례관리나 프로그램지원에 대한 연계사업 시 성동구 교육복지센터가 개소된 이래로 교육복지 관련 기관 간의 원활한 중개 및 연계의 중요한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였다는 성과를 이루었다는 평가다.

이영수[29]의 센터성공요인과 관련한 분석에서사업 및 역할의 명확성과 센터의 플랫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동구 내 자원의 연계와 관리측면에서 성동교육복지센터는 다양한 영역에서 자원연계의 기능을 담당하여 대상학생의 문제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평가다. 즉 다양한 문화, 경제, 법률적인 자원의 확보 및 연계의 중심축을 담당하여 지역·학교·가정의 공식적, 비공식적 자원관리 및 연계를 통해 교육소의 대상학생의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셋째, 사례관리측면에서 대상학생의 발굴, 의뢰, 개입, 문제해결에 있어서 통합적인 접근 및 개입이 가능하도록 조정 및 연계, 통합의 역할을 사업목적에 맞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결과는 이영수[29]의 센터성공요인과 관련한 분석에서 통합사례관리 구축이 중요하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향후 성동구교육복지센터의 효과적인 사례관리의 운영을 위해서는 기간 관 긴밀한 사례정보의 공유가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사례관리는 중복방지를 위한 조정과 정보의 공유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향후 성동구교육복지센터의 역할에 대한 인식 및 연계기능에 대한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홍보와 인식교육이 필요하다.

이영수[29]의 센터성공요인과 관련한 분석에서 사업의 홍보강화가 중요하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향후 성동구교육복지센터의 자원의 연계 및 활용은 대상학생의 문제해결에 중요한 요소이다. 효과적인 자원관리를 위해서는 교육복지네트워크기관들 간의 긴밀한 연계 및 조정이 필요하다.

이영수[29]의 센터성공요인과 관련한 분석에서 학교와의 네트워크, 지역기관과의 네트워크, 지역 내 인적자원 구축 및 활용이 중요하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향후 성동구교육복지센터 프로그램의 다양한 영역의 확대가 요구된다. 거점센터로서의 동행 등의 상담지원이나 멘토링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대상학생 및 가정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들의 개발과 확대, 유지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전문가의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지난 3년

간 성동구교육복지센터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나 성과를 통해 지역의 중심거점으로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이루어냈음이 확인되었다.

즉 통합적인 사례관리체계의 구축과 효과적인 자원연계 및 개발, 실질적인 프로그램의 지원, 학교·지역사회 연계의 거점역할로서의 성과를 달성했다는 평가다.

또한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제언으로는 교육복지사업 실무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센터사업의 정기적 홍보 및 인식교육 강화, 중복지원대상자의 사례방지와 통합적 사례관리체계구축 등의 효과적인 사례개입을 위한 지원방안의 모색과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견고한 지원체계의 수립 및 구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교육복지센터의 향후계획 및 발전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자료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성동구교육복지센터의 역할의 다양성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을 시작으로 지난 3년 동안의 성과와 향후 발전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으로 가치가 크지만, 실증적인 효과성 검증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교육복지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영역의 복지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양적, 질적 연구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물들이 축적될 때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거점센터로서의 업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교육복지센터의 역할과 성과에 관한 연구가 더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1] K. K. Kim. (2005). Educational Gap in Korea and Determinant Factors. *Educational Gap in Korea and Determinant Factors*, 15(3), 1.
- [2] M. K. Kim,(2018). A Convergent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Adolescents' Mental Health of Multicultural Famil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1), 189-197.
- [3] K. S. Ko, J. S. Lee & C. h. Park. (2017). A Study on the Educational Smart Contents of Adolescents' Gatekeeper Program.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 Society*, 8(6), 181-197.
- [4] K. N. Park (2014). Differences and Effect of After-School Class Experiences on Elementary Students' Sociality and Self-Esteem.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5), 46.
- [5] K. M. Park, M. h. Gang & K. O. Oh. (2017). The Effects of the Magic Program on Depression and Self-esteem in Rural Low-Income Childre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2), 208.
- [6] K. J. Cho. (2014). Problems and improvement tasks for restructuring of the educational welfare priority projec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2), 496.
- [7] S. W. Byun, S. H. Kim & S. H. Park. (2017). A Meta-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interventions applied to teens in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 278.
- [8] Coleman. J. S., Campbell, E. Q., Hobson, C. J. & McPartland, J. M. (1996).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Washington. D. 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9] K. S. Kim, K. S. Shin & H. M. Lee. (2017). The Effect of Positive and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on Adolescents' Smartphone Dependency in the Time of Convergence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oor Attachment.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7(4), 139-149.
- [10] I. H. Kim. (2010). Tasks of Education Welfare Policy for Eliminating Educational Alienation and Disparity. *Korea Social Policy Review*, 17(1), 130-137.
- [11] K. H. Ok, M. H. Kim & H. Y. Chun, (2001). An ecological approach to enhancing self-care children's welfare of low-income families. *Sungkok collection of treatises*, 32(3), 3.
- [12] E. D. Kim & C. S. Park. (2017). The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Stress on Children's Problematic Behavior in the Times of Convergence : The Moderating Effects of Father's Parenting Participation.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7(6), 123-133.
- [13] B. R. Ryu. (2010). Direction of education welfare policy for education alienated group.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4, 76.
- [14] Y. J. Cho. (2013). Diagnosis and analysis of private education expenses polarization. *The Korean Society for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Conference*. Seoul : The Korean Society For The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76.
- [15] Seoul Metropolitan of Education. (2016). *2016 Education Welfare Priority Support Project Operation Manual*. [Operation Manual] . Seoul.
- [16] I. H. Kim & B. Y. Ahn. (2009). *Education welfare policy*, Seoul : DasanBooks.
- [17] J. W. Kim. (2007). Education welfare and the scope of school education.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17(4), 39.
- [18] B. S. Hong. (2004). Directions and Assignments of Educational Welfare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6(1), 257.
- [19] I. H. Kim. (2012). A Study on the Operation of Community of Practice As a Mechanism for Strengthening School Faculty's Education Welfare Capabilities. *Research on Political Science in Education*, 19(4), 3.
- [20] Seoul Metropolitan of Education. (2013). *2013 Regional Education Welfare Center establishment*. [Operating plan] . Seoul.
- [21] S. J. Lee. (2016).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Policy of 'Priority-Zone Investment for Education Welfare'.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2), 1141-1159.
- [22] K. A. Kim & J. W. Kim. (2007). Case study on the building process of network-based education system in a community.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Lifelong Education*, 13(3), 117-142.
- [23] K. A. Kim. (2009). Exploring meaning of a networker's role in the education-welfare network : Mainly with cases of school in the eduzone project.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Lifelong Education*, 15(4), 185-215.
- [24] Y. K. Lee. (2013). A Study on networking in education welfare priority zone.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1(4), 137-167.
- [25] E. Y. Jo & S. G. Kim. (2013). Factors Influencing Service Use of Education Welfare Priority Support Project.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Social Work*, 25, 1-23.
- [26] Morgan, D. I. (1998). *The Focus Group Guidebook: Focus Group Kit 1*, SAGE Publication: CA.
- [27] Krueger, R. A. (1998). *Analyzing & Reporting Focus Group Results: Focus Group Kit 6*, SAGE Publication: CA.
- [28] Y. H. Kim & S. H. Kang. (2014). An Exploration Study of Entrepreneurial Experiences and Ensuing Burnouts: Focus-Group Interviews among Professional Counselor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6(1), 1-26.
- [29] Y. S. Lee. (2015, October). A Study on Relative Importance of Critical Success Factors in the Seoul

Education and Welfare Center. *Seoul Regional Education Center Forum Presentation*, Seoul : Seoul Regional Education Welfare Center, 1-26.

권 성 철( Kwon, Sung Chul)

[정회원]



- 2000년 8월 :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17년 2월 : 가톨릭대학교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박사수료)
- 2013년 3월 ~ 현재 : 신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 관심분야 : 지역복지, 노인복지, 교육복지, 탈북사업
- E-Mail : hoof40@hanmail.net